

문화방송 노보

발행일 : 2026. 05. 28

288호

www.mbcunion.or.kr

NATIONAL UNION
OF MEDIACREATORS
MUNHWA BROADCASTING UNION

발행인 전성관 편집인 조재영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전화번호 02-789-3886 FAX 02-782-0135

공정방송 깃발 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서울지부 노사협의회 지상중계

1분기 노사협의회가 5월 18일 열렸다. 전성관 본부장은 “임원진의 임기가 원래 올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연을 조금 더 이어가게 됐다”며 “조합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에 질문하고 조합원에게 답하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사장은 “얼마 전 노동절 행사를 통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깊은 애정과 헌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대내외적 경영 여건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보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광고 매출 급락·수익 기반 우려 확대 대응 전략 있나?

조합은 가장 먼저 “지난해 광고 매출 2천억 원 선이 무너진 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업 적자 상황과 맞물려 회사의 수익 기반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영진의 대응 전략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21세기 대군부인> 덕분에 4월 광고 매출이 좋은 편이었고 4월 지상파 TV광고 시장 실적도 MBC가 1위지만, TV광고 시장의 파이 자체가 작아지면서 한계가 있다”며 “향후 광고 비수기 등을 감안해 제작 목표량을 낮추거나, 프로그램별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조합은 “광고 시장의 방송 축소와 디지털 확대 추세에 따라, 디지털 광고 쪽에 힘을 실어 전체 매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 짚으며 “현재 사업제작센터, 매시업사업팀, 디지털뉴스룸, 마케팅솔루션국 등으로 사내 디지털 광고 역량이 분산돼 별개로 움직이고 있고 이를 통합하는 방향성이나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며 “경영진으로서 잘 새겨 들겠다”고 답변했다.

모스트267·도스트11 등 전략 자회사 중복 업무 문제 없나?

조합은 노사협의회 사전 준비 자료로 전략 자회사의 설립 취지와 운영 현황 등의 내용을 사측에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측은 모스트267이 설립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정도로 각종 OTT 분야에서 활약 중이라며 여러 사례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도스트11은 회사의 유일한 시사회사로 혁신을 위한 ‘메기 효과’를 가장 큰 존재 이유로 꼽으며, 현재 적자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본사와 비교해볼 때 자회사는 OTT 제작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고, 본사와 자회사 간 경쟁 관계가 가져오는 건강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MBC 내 기존 부서와 자회사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 회사가 자회사를 우선적으로 밀어준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가 있고 이런 우려부터 불식해야 혼선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특히 기존 현업 부서 구성원들의 역량이 이미 탁월한데 이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과연 충분했는가, 향후 적극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스튜디오K 사업 현황 - 회사 인근 병원 업무 제휴

조합은 매출 다각화를 위한 회사의 신사업 개발 기초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동안 회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스튜디오K’의 사업 진행 단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측은 협상 당사자들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해 최종 협상 전까지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사측은 “스튜디오K는 속도보다 안전성과 완벽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7월 말~8월 초 사이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 한다”고 답변했다. 구성원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조합이 제안한 ‘회사 인근 병원과의 업무 제휴 할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노사 간 실무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MBC본부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승인

구분		2025년 예산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일반 회계	1. 수입	조합비	1,430,000,000	1,432,697,785	1,178,000,000
		예금이자	3,500,000	15,933,135	15,000,000
		기타(수입)	1,500,000	1,600,000	0
		합계	1,435,000,000	1,450,230,920	1,193,000,000
	2. 지출	분부운영비	1,016,150,000	912,729,672	715,450,000
		지부운영비	468,000,000	473,295,713	487,550,000
		기타(지출)	0	100,000,000	0
	합계	1,484,150,000	1,486,025,385	1,203,000,000	
	3. 손익 (1-2)	-49,150,000	-35,794,465	-10,000,000	
	4. 이월금 변동	745,879,725(전기 이월금)-35,794,465(당기손실) : 710,085,260			
특별 회계	임금보전기금	605,443,061(전기 이월금)+17,226,782(예금이자) : 622,669,843			
	쟁의기금	113,322,513(전기 이월금)+ 3,499,301(예금이자) : 116,821,814			
※2026년 일반회계 예산은 조합비 직접 납부(서울지부)로 수입/지출 항목 일부 축소					



4월 22일 16기 본부 9차 중앙집행위원회와 본부 5차 정기대의원회에서 2025년 회계감사 및 결산,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6년 조합비 지부담금 건이 의결되었다.

<상세 내용 좌측 표 참고>

2026년 1분기 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프로그램

좋은 보도상

서울 스트레이트 <4.3과 빼앗긴 이름>

김정인 조함원

수상소감



지난해 계엄과 제주 4.3에 대한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유족 분들께 뒤들린 가족 관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가 많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방송에 담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4.3의 아픔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뒤들린 가족 관계로 이름을 잃은 피해자의 이야기라 딱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3 유족들은 국가 폭력으로 가족을 잃고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생 한을 안고 살아온 분들은, 심지어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피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국가가 나서 2023년부터 가족 관계를 정정하고 있지만, 5백여 명의 신청자 중 단 4명의 가족 관계만 바로 잡혔을 뿐입니다. 그 사이 고령이신 유족들은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국가가 잘못을 바로 잡는 일에 속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뜻 깊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 <'1년이 364일?' 대통령도 분노한 공공기관 꿈수계약> 단독 보도

이선영 조함원

수상소감



'364일 계약'을 비롯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등의 이유로 자행되던 공공기관의 꿈수 계약 관행을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지적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하던 현장의 실태를 끝까지 추적해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보도는 결국 낙동강청의 퇴직금 지급과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뜻깊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계약서에서 사라진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자부심이자 땀의 대가임을 알기에, 상식을 지키기 위한 추적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상

서울 PD수첩 <신천지 추적기-미션1: 대통령 만들기>

김경희 조함원

수상소감



PD수첩 <신천지 추적기-미션1: 대통령 만들기>는 1,500회를 맞아 그간 성역 없는 취재를 해오던 프로그램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려 수많은 스태프들이 공들인 회차였습니다. 사이버 종교 취재 특유의 부침과 힘듦을 이겨내야 했고, 정치와 종교 유착 비리의혹까지 파헤쳐야 했던 터라 상대적으로 더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제작진에게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차가 방송될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90여 명의 탈퇴 제보자들과 취재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교유착의혹 그 끝까지를 추적하려고 애썼던 모든 제작진 덕분입니다. 20년 전 신천지를 첫 방송했던 PD수첩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도 귀한 제보들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교유착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저희 PD수첩은 계속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팀에서 일부 역할을 한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울산 <딜레이 오브 게임>

김보은 조함원

수상소감



'딜레이 오브 게임(Delay of Game)'은 미식축구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공격을 시작하지 못했을 때 선언되는 반칙을 의미합니다. 이 반칙이 선언되면 공격팀은 5야드 뒤로 물러난 채 다시 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산업 역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큐멘터리 <딜레이 오브 게임>은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입사한 2019년, 울산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이렇게 더딘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딜레이 오브 게임>은 그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저의 고민이,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이들의 고민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랑 끝 지역방송

예산 복원 '새로운 진흥정책'

방발기금 복원 토론회부터 결의문 채택까지..



구조적인 재정난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중소방송을 살리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16개 지역 지부들은 지난 3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예산 삭감 문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 지난 19일 열린 지역방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방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 상임위가 지역·중소방송 지원을 위해 어렵게 증액했던 방발기금 예산 중 157억 원을 최종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지역MBC와 지역 민방 노조 지부장단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전국언론노조, 국회 과방위 이훈기·이정현·이주희 의원실과 함께 지난 3월 4일 토론회를 열고,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한 그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를 통해 진행되어온 지원사업의 과도한 자부담 비율과 행정 편의주의적 정산 시스템, 지역성이 소외된 평가 기준의 편향성을 함께 짚었습니다.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개별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 예산 지원을 비롯해 특집만이 아닌 일상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적극적인 인력 및 인프라 투자 지원 등 정책 대안 제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19일 개최된 2026년 지역방송협의회 정기총회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방송 종사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6.3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아, 지역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생존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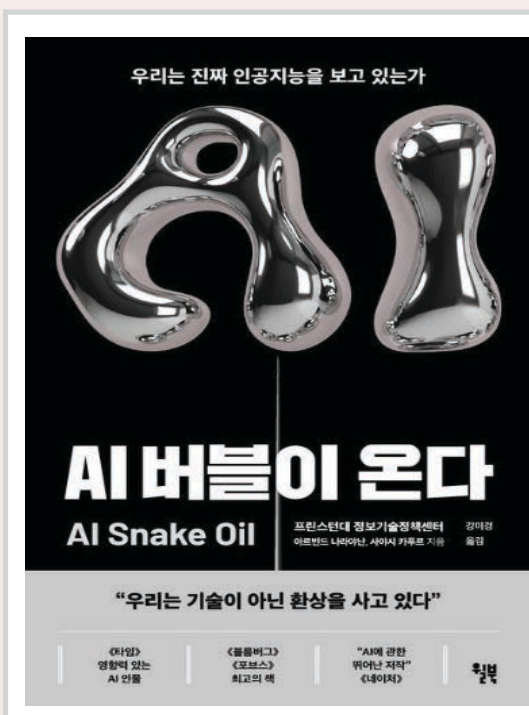
협의회는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국 3특'의 핵심 인프라에 지역방송 포함 △삭감된 방발기금 157억 원의 즉각적인 복원 △재원 안정화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연계 등 종합대책 마련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내 지역미디어정책과의 '국 단위 전담기구' 확대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지역방송의 위기는 단순히 한 방송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퇴행과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이 문제에 공적 자산인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복원과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노동조합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 송정근 조직국장



전성관 위원장 추천도서



*주의

1. 이 책은 현재 AI의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2. 책 제목 <AI 버블이 온다>에 선입견 갖지 마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 번역이 불만인데 '버블'이라고 하면 곧 터져서 그 쪼그라든 실체가 드러날 것 같지만 저자의 의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두 저자의 프로필을 보면 자못 화려합니다. 프린스턴대 정보기술센터 소속 과학자이면서 2023년 타임지 'AI분야 영향력 있는 사상가 10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I 개발의 최전선에 있을 법한 공학자가 제목도 섬뜩한(저는 이에 대한 불만을 주의에서 밝혔습니다) 'AI버블'에 대한 경고라니요! 원 제목은 'AI Snake Oil'입니다. 미국에서 1905년 기적의 치료제로 광고된 '뱀기름'(53쪽에 그 광고가 있습니다)을 빗대어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저자는 현실에 들어와 있는 AI를 생성형/예측형/콘텐츠 조정형 AI 이렇게 3가지 범주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측형 AI에 대해선 그 허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생성형 AI는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에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착취 노동의 현실을 꼬집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SNS의 콘텐츠 조정의 현실에 대해선 '추천 알고리즘은 해로운 콘텐츠를 증폭하고 콘텐츠 조정 알고리즘은 이를 찾아내 억누르려고 애쓰는 줄다리기와 관련해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이

<AI 버블이 온다>

우세하다는 점이다(309쪽).' 라고 함으로써 규제를 통한 SNS 유해 콘텐츠 견제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해 언론의 역할, 즉 이런 현실을 오도하고 증폭하는 미디어를 강하게 질타도 하고 있습니다(347쪽에 2023년 MS가 'Bing'을 출시하고 난 뒤 나온 오도성 기사 제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공학자 두 분의 기개가 만만치 않은 것이, 2021년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다니얼 허튼로커의 저서 <AI이후의 세계>도 "AI 과장 광고로 얼룩졌다(350쪽)"라고 비판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 키신저에 그 슈밋이 맞습니다.

같은 책이라도 어떤 독자가 읽느냐에 따라 얻는 통찰과 책 내용에 대한 동의의 온도가 달라질 것이기에 제가 이해한 것을 더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알려 드려야겠지요?

"異面(이면)"

어떤 현상이나 사건,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해 입체적으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페이스북, 오픈AI 처럼 때에 따라선 숨겨야 할 어두운 이면이 있기도 하고요(오픈 AI의 이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월스트리트'지 기술기업 담당 기자 카렌 하오가 쓴 <AI 제국/권력, 자본, 노동>의 일독을 권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알기 전에는 그 사건, 그 시대, 그 인물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전면(前面)보다 이면에 보이지 않는, 아니 보이지 싫은 무언가가 있다면 쉽게 신뢰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굳이 애써 이면을 들여다보려 애쓰지 않아도 조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합원분들이 조합의 전면만으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서 소개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결말로 이어져서 어리둥절하시겠지만, 이 또한 제가 이 책을 독해하고 얻은 통찰 중 하나였으니까 굳이 이면에 두지 않고 조합원분들께 감히 꺼내 보입니다 :)

※ 같이 보면 좋은 책

테크노 퓨달리즘-야니스 바루파키스, 감시자본주의-쇼샤나 주보프(주의!벽돌책)

2026 전국 민실위·성평등위 대회 후기

지난 2월 9일, 전국 민실위·성평등위원회 대회에 충북지부 민실위 간사 자격으로 참가했다. 날씨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반가운 얼굴들과 처음 뵙는 민실위 간사 동료들을 보면서 무언의 연대 의식이 올라왔고, 이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상파 방송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송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그 무게감이 남달랐는데, 성평등 및 시특강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올라온 민실위 간사들과의 토의에서 지역 방송이 처한 현실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그중 몇 가지 공통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협찬이 잠식하는 방송의 정체성

편제 민실위 토의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바로 '협찬'이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긴 했지만, 지역 방송에서 협찬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은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현실이 되었다. 광고 수입이 줄고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PD가 직접 협찬을 유치해 방송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론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단순한 재원 확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널리즘을 실천하겠다는 꿈을 품고 입사한 PD들이 협찬 영업의 최전선에 내몰리면서 직업적 정체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자체들이 이미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다. '돈줄'로서의 위치를 인식한 지자체는 경쟁에 내몰린 방송사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침식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뉴미디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구조적 생존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을 눈감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한다. 품질 하락, 공정성 훼손, 방송 사유화—협찬 구조가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지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식화하는 것만으로도 사측과 외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번 민실위 대회에서 이러한 존재 의미에 대한 유익한 토의가 이루어진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방송 사유화에 대한 견제



토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바로 '방송 사유화'에 대한 문제였다. 지역 방송의 특성상 소수 인원이 오랜 시간 함께 일해야 하는 폐쇄적인 구조에서는 문제 제기 자체가 인신공격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불의를 목격해도 입을 열기 어려운 환경—

이것이 지역 방송 특유의 취약성이다. 민실위 간사의 대부분이 저연차 후배 PD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노조로 넘기기에는 애매하지만 묵과하기도 어려운 사안에 대해 민실위가 특수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에 깊이 공감했다. 이는 민실위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더 큰 논의와 맞닿아 있다.



민실위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구에 머물지 않고,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민실위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실 이번 전국 대회의 진정한 의미는 개별 지부의 고립된 경험을 민실위라는 창구에서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체계, 이른바 '민실위 케이스스터디'의 가능성을 확인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제·제도 간 일관성 있는 선거방송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는 데도 공감했다.

유익한 특강 경험

토의에 앞서 박미애 강사의 '성평등으로 만드는 존중과 안전의 MBC'와 도스트일레븐(DOST11)의 '생성형 AI가 가져온 방송 현장의 변화' 특강이 진행되었다. 두 주제 모두 중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일상에서 좀처럼 깊이 다루지 못했던 만큼, 주제 선정이 적절했다고 느꼈다.



20년 전에 입사한 나에게 첫 번째 특강은 변화한 직장 문화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되새겨 주는 시간이었다. 이어진 AI와 방송 제작 환경 변화 특강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자로 걸어가는 모습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올드 미디어 환경에서 개척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왠지 더 짠하게 느껴졌다.

이번 대회는 유익한 특강으로 시작해 깊이 있는 토의로 마무리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조직이 처한 어려움과 압박, 그리고 조직 내에서 발언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제를 공식석상에서 꺼낸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양심이 살아야 방송이 산다'는 민실위의 의지와 기개에 큰 찬사를 보낸다. MBC충북에서도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민실위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성실히 이어가겠다.

충북지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김영수 (편성제작국)



성평등위원회 1년을 돌아보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주기를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순환 근무 순번이 돌아오듯 '내 차례가 되었구나'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가 가진 무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출발이었습니다.

위원이 되고 나니 평소 무심코 흘려들던 목소리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들이 위계질서 속에서 마주하는 불편함부터, 동료들이 일터에서 겪는 당황스럽고 부당한 일들까지. 역설적이게도, 성평등위원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평등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고자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회사와 소통하는 일은 복잡했고,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인류애를 잃을 뻔한 적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원인 제가 함께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인 의무교육 대신, 우리 조직에 맞는 '성평등교육'을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평등 교육'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라디오국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결국 '동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 부당함 앞에서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생각에 종종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너만 그런 게 아니야'라며 함께 용기를 내어줄 때, 조직과 사회는 조금씩 바뀐다고 믿습니다. 혼자 속앓이를 할 때 가장 먼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각 부서의 성평등위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바로 내 옆의 동료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터와 사회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서울지부
성평등위원
양지안(라디오국)

